

전북도, 새만금 신항 국제 크루즈 유치 ‘시동’

새만금 신항 크루즈 팸투어 개최
선사·여행사 등 20여명 현장 답사
군산·김제·전주 기항코스 점검
관광상품 개발·포트세일즈 본격화

전북도가 새만금 신항을 중심으로 한 국제 크루즈 유치와 기항 관광상품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도는 10일 국내 크루즈 선사와 여행사,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을 초청해 ‘새만금 신항 크루즈 팸투어’를 개최했다.

이번 팸투어는 지난해 12월 새만금항이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되고, 올해 4월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활성화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실제 크루즈 상품을 운항·기획하는 업계 관계자들에게 새만금 신항의 여건과 전북의 관광자원을 알리고 기항 관

광상품 개발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팸투어에는 팬스타그룹을 비롯해 롯데JT, 투어론, 위플릿, 아주관광 등 크루즈 선사·여행사와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군산·김제·전주시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먼저 최대 22만 톤급 크루즈선이 접안할 수 있는 새만금 신항을 찾아 항만 여건을 살폈다.

군산 고군산군도와 김제 벽골제·아리랑문학마을, 전주한옥마을의 경기전·전동성당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기항 관광코스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했다.

답사 후에는 전주에서 자문회의를 열어 팸투어 참가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문을 진행하고, 관광코스의 상품성과 새만금 신항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도는 이번 팸투어에서 나온 의견을 향후 크루즈 관광상



<사진=전북도>

품 개발과 유치 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는 새만금 신항의 국제 크루즈 유치를 위해 2023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크루즈산업 발전위원회와 관광분야 TF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새만금항이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됐으며,

올해 7월에는 대만 포트세일즈를 추진하는 등 국내외 선사·여행사를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향후에도 새만금 신항 크루즈 활성화를 위해 선사·여행사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크루즈 유치 마케팅과 포트세일즈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

전주·익산, 청주공항 관광권 합류...외래객 유치 ‘날개’

전주·익산, 문체부 5대 관광권 선정
국비 659억 등 935억 투입 육성
전통문화·역사 활용 체류관광 강화

전북도는 전주시와 익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공향 중심 5대 관광권’ 가운데 청주공항 관광권에 포함됐다고 10일 밝혔다.

전북 관광권은 청주공항을 관문으로 ‘청주·공주·부여·익산·전주’를 연결하는 광역관광권이다. 이번 선정으로 전북은 청주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래관광객을 도내로 유치하고, 전통문화와 백제역사 등 지역의 특화 관광자원을 연계해 체류와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청주공항과 전북 간 관광 연계가 강화됨에 따라 전북에 대한 외래관광객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전주와 익산을 중심으로 도내 관광지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공향 중심 관광권 육성사업’은 지방공향을 관문으로 인근 관광도시를 연결해 외래관광객의 입국부터 이동, 체류, 체험까지 이어지는 지역관광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부의 신규 관광정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분야 민간 전문가로 관광권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래관광객 여행 관련 데이터 등을 토대로 관광 매력도와 관광 교통 여건, 확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대 관광권을 선정했다. 전북 관광권은 전주의 전통문화와 관광자원과 익산·공주·부여의 유네스코 백제역사유적지구, 청주의 문화·예술·마이스(MICE) 기반을 연결해 내륙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권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도는 전주의 한옥마을과 전통문화, 익산의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 등 세계유산과 연계한 역사·문화 관광콘텐츠를 강화하고, 숙박과 체험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외래관광객의 체류와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권을 대한민국 대표 방한 관광경로로 육성하기 위해 ‘골드(GOLD)’ 전략을 추진한다. 관광권별 해외 홍보를 강화하는 세계화(Global Branding), 지방공향·항만을 통한 입국과 관광상품을 연계하는 원스톱 유치(One-Stop & Pass), 교통·결제 편의를 높이는 연결성 강화(Linkage), 지역별 특화 관광콘텐츠를 확보하는 목적지 다양화(Diversity)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2027년 정부예산안에는 5대 관광권 육성을 위해 국비 659억 원과 지방비 276억 원 등 총 935억 원이 편성됐다. 국비는 관광권 중심 해외마케팅에 180억 원, 지방공향·항만 연계 외래관광객 유치에 143억 원, 교통망 확충과 결제 편의 개선에 149억 원, 특화 관광콘텐츠 육성 등에 18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충청북도·충청남도, 청주시·공주시·부여군·전주시·익산시,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광권 중장기 발전

계획과 세부 사업을 마련할 방침이다.

청주공항과 전북을 연결하는 관광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외래관광객의 선호를 반영한 체류형 관광상품과 관광권 공동브랜드를 개발한다. 또한 전북의 전통문화와 백제역사를 활용한 특화 콘텐츠를 발굴한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는 전북연구원이 청주공항과 전북을 연결하는 관광권 구성과 발전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전북관광자원의 경쟁력과 지역 간 연계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힘을 보탰다. 향후 관광권 중장기 발전계획과 세부 사업을 마련하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전북관광자원의 특화·연계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박동우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선정은 청주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래관광객의 여행 동선을 전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전북의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광역 관광교통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권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정동영 “북·미 회담, 이재명 정부 기회의 창”



정동영 의원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의원연구단체인 ‘동북아 평화공존포럼’은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다극화시대의 한반도평화공존전략과 평화체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정 의원과 포럼의 책임연구원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희망 표명은 이재명 정부에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의 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기정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남·북·미·중 다자협정과 북·미 양자협정 등을 결합한 평화체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에서는 북한의 핵 능력과 군사적 위협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안을 놓고 의견이 제시됐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비핵화를 단계적 핵 통제·군축 과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DMZ 비무장화와 9·19 군사합의 복원을 제안했다.

박휘락 전 국민대 교수는 북한의 핵무력 강화와 대남 전략을 고려할 때 비핵화 대신 핵 군축을 수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변화된 북한의 안보 현실에 맞는 새로운 평화체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이성운 “현대차 새만금 투자, 정부가 챙겨야”

李 임기 내 투자 완성 지원 요청
공소청 인력·조직 재검토 촉구

이성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는 공소청 인력·조직 재검토를 촉구하고, 현대차 새만금 투자와 전북대학교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가 선정 등 전북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검찰의 수사업무가 사라지는데도 검사 정원은 2,292명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수사관 등 일반직 인력도 기존의 70% 이상인 6,120명이 남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던 검찰에 수사업무가 빠졌으면 인력과 예산도 당연히 줄어들어야 한다”며,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업무 변화를 반영해 공소청의 적정 인력과 조직을 제대로 진단했는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정부의 인력·조직 평가 결과와 정원 산정 근거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한 총리는 공소 관련 기능 강화 등을 고려해 인력과 예산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면서도, 담당 업무와 강화할 기능을 세부적으로 정리해 제출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의 요청에 따라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다시 살펴 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은 완수가 중요하다”며 “정치 환경이 변해도 다



이성운 의원

시는 정치검찰이 부활할 수 있도록 불가적인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조직 등 후속 조치를 끝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북의 미래산업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을 ‘기회의 땅’이라고 언급한 점을 상기시키며, 현대차의 새만금 9조 원 투자가 대통령 임기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총리가 각별히 점검하고 챙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북대학교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새만금 항만·공항·철도 등 광역 교통망을 연결하는 핵심 도로인 남북3축도로에 대해서는 조기 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피지컬 AI 산업이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새만금의 로보 관련 산업 육성을 행기는 한편, 전북대 추가 선정 요청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북3축도로와 피지컬 AI와 관련해서도 전북과 새만금의 산업적 중요성을 언급하며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의원은 “전북과 새만금이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의 성과를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윤준병 ‘공수처 수사 사각지대 해소법’ 대표 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김·경 수사권 조정 및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기소 대상을 정비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공수처 수사 사각지대 해소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 중 경찰 공무원의 범위를 현행 ‘경무관 이상’에서 일선 수사의 실질적인 지휘관인 ‘총경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대범죄수사처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에 포함해 공수처 수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개정안을 발의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윤준병 의원

규정하면서, 경찰 공무원의 경우 경무관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실질적인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경 계급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외부 견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중대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직접적인 수사 및 기소 대상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윤 의원은 “권한이 커진 만큼 엄격한 책임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생활 속 안전수칙 실천해요!

횡단보도 이용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 금지	불법 주·정차 금지 소방차, 응급차 등 긴급차량 진입에 방해	이륜차 안전모 착용 보호대까지 착용하여 더욱 안전하게!	문어발식 콘센트 금지 화재 위험! 분리하여 사용하자	중간밸브 잠그기 가스레인지 장시간 사용 시 환기도 필수!

아동학대 판단위에 ‘교사 참여’ 이끌어내

전북교사노조, 전주시와 면담서 ‘교사 1인 포함’ 확답

전주시가 운영하는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에 현직 교사가 위원으로 정식 참여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전북교사노동조합은 10일 전주시청 아동학대전담팀과 면담을 갖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으며, 시로부터 6~9명으로 구성되는 사례판단위원회에 교사 1인을 반드시 위촉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노조는 아동 보호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교사의 통상적인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로 몰려 다단계 조사와

수사에 시달리는 현장 고충을 전달했다.

실제로 최근 교원 3단체 집계에 따르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을 낸 993건 가운데 90.4%(898건)가 최종 무혐의·불기소 판단을 받았다.

아울러 노조는 전주시에 최근 3년간 교원·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실제 판정 비율, 위원회 직권별 구성 자료를 서면 요청했다.

또 교육감이 정당한 지도 활동으로 인

정한 사안은 위원회 심의에서도 해당 의견을 적극 존중·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북교사노조 정책석 위원장은 “아동 보호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현장 교사의 위원회 참여를 계기로 교사가 소신껏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망이 더욱 공고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사진=전북대>

전북대, 차세대 정보시스템 본격 운영

학사·행정부터 연구비 정산까지 전면 디지털화

전북대학교가 학사와 행정, 연구지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차세대 정보 플랫폼 구축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전북대는 10일 교내에서 양오봉 총장과 교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 ‘JUMP(점프)’와 연구비관리시스템 ‘JUIC(쥬익)’ 공식 개통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번 시스템 구축에는 2023년부터 총 150억 원(JUMP 120억 원·JUIC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학사·행정 업무를 아우르는 JUMP는 약 4,000개의 신규 화면을 개발해

종이 없는(페이퍼리스) 행정 환경을 구현했다.

사용자 맞춤형 모바일 포털을 비롯해 유학생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 비교과 통합관리 및 졸업 자기진단 기능을 갖췄다.

함께 도입된 JUIC은 연구과제 신청부터 집행, 정산까지 전 과정을 전자 증빙과 전자결재로 일원화해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대폭 줄였다.

양오봉 총장은 “JUMP와 JUIC 오픈은 대학의 교육과 연구, 행정 전반을 편리하고 효율적인 AI 기반 환경으로 혁신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해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전했다.

/최성민 기자

군산시, YG엔터테인먼트와 대중문화 콘텐츠 확장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아동·청소년 문화 접근성↑

군산에서 YG엔터테인먼트의 음악 및 문화 콘텐츠를 경험하는 특별한 프로젝트가 펼쳐진다.

군산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은 YG엔터테인먼트와 함께 내달 2일부터 31일까지 군산회관과 군산항1981 일원에서 ‘PROJECT YOURSIDE 군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PROJECT YOURSIDE(프로젝트 유어 사이드)’는 수도권에 집중된 대중문화 콘텐츠를 지역으로 확장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아동·청소년의 문

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YG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콘텐츠가 군산에 녹아들어, 단순한 관람을 넘어 지역에 새로운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YG의 대중음악 콘텐츠를 군산의 문화공간과 연결해 지역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시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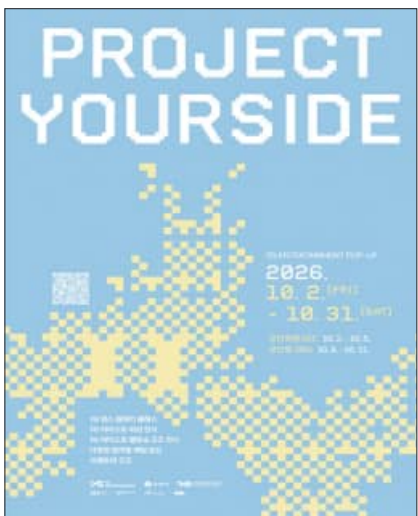
메인 전시는 내달 2일부터 5일까지 군산회관에서 진행되며, 이어 내달 8일부터 31일까지 군산항1981에서 상설 전시가 열린다.

프로젝트 기간에는 YG 아티스트의 엘

범·의상·굿즈 등 다양한 콘텐츠 전시뿐만 아니라, 댄스클래스 체험,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응원봉 만들기 등 다채로운 구성을 통해 관람객들이 자신만의 특별한 문화적 경험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획됐다. 군산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PROJECT YOURSIDE 군산을 통해 대중문화 콘텐츠가 지역과 만나 새로운 경험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한다”며 “많은 분들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군산에서 자신만의 특별한 시간을 보내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 프로그램 및 행사 참여 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9월 중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문화관광재단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사진=군산시>

익산시 ‘숨리골 작은 영화제’ 열린다

역사·문화·시민 이야기 펼쳐져

익산의 역사와 문화, 시민들의 이야기가 스크린 위에 펼쳐진다.

익산시는 오늘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익산숨리문화의숲 2층 숨리소극장에서 ‘2026 숨리골 작은 영화제’가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영화제는 익산시와 익산시민화도시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시민 참여 플랫폼 ‘문화마을29’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익산을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지역을 배경으로 한 영화와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 등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영화제에서는 지역을 담은 단편영화와 함께 시민 참여로 완성된 ‘3분 숨리골 공모전’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공모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익산을 배경이나 주제로 제작한 작품에는 가산점을 부여해 지역의 다양한 모습을 영상에 담도록 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특히 12일에는 지역 영화 초청 작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상영이 이어진다. ‘너에게 닿기를’, ‘여름에 내린 눈’, ‘뒤통’ 등이 관객을 만나고, 오후에는 3분 숨리골 공모전 수상작과 ‘무비 in 익산’ 작품들이 차례로 상영된다.

익산 시민과 함께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제작한 실사 드라마 ‘무왕의 꿈’도 선보인다. 상영 후에는 관객과의 대화(GV)를 마련해 작품 제작 과정과 작품에 담긴 이야기를 관객들과 나눈다.

영화제 기간 모든 작품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박성일 익산시 문화유산과장은 “숨리골 작은 영화제가 익산의 역사와 문화, 시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영화를 통해 발견하고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시민이 영화제를 찾아 지역을 담은 작품을 감상하며 특별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스포츠클럽 차승현, 여초부 해비급 1위

태권도 유망주 ‘급부상’

전주스포츠클럽(코치 문형호) 소속 전주삼천초등학교 6학년 차승현 선수는 지난 5일~9일까지 경북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태권도대회에서 여초부 해비급 1위를 차지했다.

차승현 선수는 2026년도에 개최한 제24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전국대회 여초 해비급 1위, 2026년 전국어린이태권왕대회 여초 해비급 1위,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전국소년체전대표를 하는 등 태권도선수 경력 10개월 만에 여자초등부 해비급에서 전국을 제패하며 태권도 유망주로 급부상한 차승현 선수는 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 꿈나무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아직은 대회 경력이 많지 않음에도 연속 3개 대회 1위를 하고 있으며 2026년 전국어린이태권왕대회에서는



<사진=한중문화협회>

지난 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때 준우승한 인천 김왕리 선수에게 8강에서 아쉽게 패한 설움을 이번 대회에서 시원하게 되갚아주는 등 태권도 기량이 일취월장하며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다.

문형호 코치는 “차승현 선수가 평소 시 성실한 훈련 태도와 순발력이 좋아 여자 선수로 더욱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며 차세대 전북특별자치도를 빛낼 선수가 될 것”을 전망했다.

/장정철 기자

도문화관광재단-로라뮤직, 국내외 협연 공연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의 ‘2026 소공연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로라뮤직이 오늘 오후 7시 30분 더바인홀(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서 ‘전주 재즈 쇼케이스 스페셜 스테이지 - MOEUN’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오는 18일 발매 예정인 손모은의 정규 2집이자 ‘MOEUN 밴드’의 첫 앨범인 ‘Murmures d’après’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앨범 제목은 한국어로 ‘이후의 속삭임’을 뜻하며, 손모은이 15년 넘게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하며 마주한 수많은 영감과 따뜻한 정서를 담았다.

손모은의 음악은 재즈의 깊이와 자유로운 즉흥성을 바탕으로 클래식 특유의 정교함을 함께 품고 있다. 유럽 현지에서 ‘손모은 재즈’라는 새로운 표현으로 소개될 만큼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 온 손모은은 이번 공연을 통해 국내 관객에게 자신의 신작을 라이브로 들려준다.

무대에는 손모은을 비롯해 프랑스에

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텍스터 골드버그(Dexter Goldberg)와 기타리스트 로맹 아베르(Romain Habert), 국내 재즈 연주자인 베이시스트 김현규와 드러머 김종현이 함께한다.

여기에 공연이 열리는 더바인홀은 약 80석 규모의 재즈 전문 소공연장이다.

연주자와 관객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 섬세한 호흡과 즉흥적인 교감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어쿠스틱과 전문 음향 시스템을 통해 각 악기의 미세한 질감까지 전달한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이번 공연은 국내외 연주자들이 음악으로 교류하며 만들어 내는 독창적인 창작 무대를 지역 관객들에게 소개하는 뜻깊은 자리다”며, “앞으로도 소공연장이 개성 있는 콘텐츠를 꾸준히 선보이고, 예술인과 도민이 보다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로라뮤직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정철 기자

치즈와 열매의 고장, 임실

청정 자연이 준 선물, 임실에 농특산물!

우리 지역 농민들의 땀과 정성이 깃들인 농특산물을 소비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임실의 이름으로 맛과 품질을 자신합니다.

치즈

고추

한우

복숭아

배

오이

딸기

토마토

양파

감자

임실군 쇼핑몰 063-640-2434 홈페이지 www.imsilin.kr

익산시, 경유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이달 말까지 납부

익산시가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 6,732건, 3억 8,16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이번 2기분은 올해 상반기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경유 자동차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후납제 방식인 만큼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폐차·탈소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 실제 소유한 날짜에 따라 일할 계산에 부과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가까운 금융기관 창구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와 위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일부 차량과 대상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에 한해 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와 유로 5·6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도 저감장치 보증기간인 3년 동안 부과가 면제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돼지고기 300kg에 담은 온정 한돈협회 정읍지부 기탁

대한한돈협회 정읍지부(지부장 김정호)는 10일 정읍시청을 찾아 40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300kg을 기탁했다.

이번 나눔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명절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이웃들의 식탁에 온정을 전하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따뜻한 추석을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기탁된 돼지고기는 관내 저소득 가정에 전달돼 소외계층의 명절 식탁에 보탬이 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잊지 않고 해마다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김정호 지부장과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탁 받은 돼지고기는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습니다”고 말했다.

김정호 지부장은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돼지고기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복지도시 정읍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오션팔레트 전국 지자체 벤치마킹 잇따라

군산시 오션팔레트가 해양레저관광시설 조성 및 운영의 우수사례로 주목받으며 타 지자체와 전문교육기관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양양군, 태안군, 보성군, 울산광역시 동구 등 타 지자체 관계자들이 오션팔레트를 방문해 시설 구성과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했다.

방문 지자체들은 해양레저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세부적으로는 △양양군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원 △태안군 만리포니아 해양레저관광 거점도시 및 해양레저 안전센터 △보성군 울포 해양복합센터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해양레저관광 거점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오션팔레트는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개장에 실제 운영에 들어간 시설로, 파도풀, 인피니티풀, 어린이풀, 서핑장, 잠수풀 등 다양한 해양레저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 운영과 안전관리, 이용객 관리, 콘텐츠 구성 등 실제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에 대한 타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목포해양대학교에서도 약 60명이 잠수 관련 전문교육을 위해 오션팔레트를 방문할 예정으로, 관광객 이용뿐만 아니라 해양레저·잠수 등 전문교육 분야로 시설 활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서 세계 신약시장 두드린다”

(주)에즈큐리스 거점 구축 연구개발·전임상 사업화 협력 강화

세계적 제약기업 아스트라제네카와 공동연구 계약을 발표한 (주)에즈큐리스가 정읍 전북연구개발특구에 신약개발 거점 구축을 추진한다.

정읍시는 에즈큐리스가 10일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전북첨단바이오연구본부와 바이오 연구개발 및 사업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에즈큐리스의 신약개발 역량과 정읍시가 보유한 연구개발·전임상 기반을 연계해 세계시장을 겨냥한 신약개발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지역 바이오산업 활성화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에즈큐리스는 단백질 간 상호작용(PPI)을 기반으로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기업이다.

지난 6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2026(BIO International Convention 2026)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공동연구 계약을 발표



<사진=정읍시>

하는 등 신약개발과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에즈큐리스의 정읍 거점 구축은 시가 ‘전북첨단바이오 부스트업 플랫폼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바이오기업 유치와 지역 연구기관 연계 전략의 하나다.

시는 2025년 4월부터 이 사업을 통해 농생명바이오에서 첨단바이오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왔다. 유망 바이오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기업과 지역 연구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는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에즈큐리스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

첨단바이오연구본부와 연구개발·전임상·사업화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거점 구축을 뒷받침해 정읍을 기반으로 한 신약개발 성과가 세계시장 진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앞으로도 ‘정읍에서 세계로’라는 방향 아래 우수 바이오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겠다”며 “기업과 지역 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해 정읍에서 세계시장으로 이어지는 신약개발과 사업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시, 전통시장 추석 장보기 혜택 ‘풍성’

농축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익산시가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장보기 혜택을 마련한다.

익산시는 다이로움을 활용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추천 이벤트’와 농축수산물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전통시장 내 다이로움 등록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다이로움’으로 3만 원 이상 결제하면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추천 이벤트’에 자동 응모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시는 참여자 가운데 1,000명을 추첨해 다이로움 포인트 1만 원을 다음 달 중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진행된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이번 행사는 국산 농축수산물과 국산·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각각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당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농축수산물은 북부시장·익산시장·서동시장·중앙시장, 수산물은 북부시장·익산시장·서동시장·남부시장·구시장 내 지정 점포에서만 적용된다.

구매 금액별 환급액은 △3만 4,000원~6만 7,000원 미만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시 2만 원이다. 두 품목을 모두 구매할 경우 농축수산물 최대 2만 원에 수산물 최대 2만 원까지 총 4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두 행사를 통해 추석을 준비하는 시민들의 장보기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전통시장 방문과 소비를 유도해 상인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화 익산시 소상공인과장은 “추석을 맞아 시민들이 전통시장에서 알뜰하게 장을 보고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도록 행사를 마련했다”며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을 찾아 명절을 준비하고, 이러한 소비가 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농민공익수당 본격 지급

농업인 1만 1,976명 대상 농가 경영 안정 도모

전북 군산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농업인 11,976명에게 총 53억 7,000만 원 규모의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한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인의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하고 농촌 공동체와 환경·생태 보전 등 농업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산시는 앞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은 뒤, 자격 검증 및 의신청 절차를 마쳤다. 시는 2024년 12월 말 이전부터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유지해 온 농업인 11,976명을 지급 대상자로 확정했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은 오는 14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선불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지급액은 1인 경영체의 경우 연 60만 원, 2인 이상 경영체

는 구성원 1명당 30만 원씩이다. 수령한 선불카드는 군산시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흥주점, 대형마트, 기타 숙박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문춘호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이상 기후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 침체된 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기업유치·일자리 잇는 민관협력 가동

인재 양성~채용까지 수요 기반 협력체계 구축

익산시가 미래산업 육성과 기업유치에 발맞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하고 채용까지 연결하는 민관협력 기반의 지역 인재공급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익산시는 10일 익산 통합일자리센터에서 ‘미래산업 대전환 기업유치 추진단’ 일자리연계·인력양성 분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광대학교와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지역 특성화고를 비롯해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익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등 교육·일자리 분야 관계자와 시 관계자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일자리연계·인력양성 분과’는 기업의 인력 수요에 지역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특성화고·직업훈련기관·일자리 유관기관이 보유한 인재와 교육과정, 기업 네트워크, 취업지원 사업을 하나로 연결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익산시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통해 파악한 기업별 채용계획과 필요 직무, 인력 수급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내달 7일 원광대학교에서 열리는 ‘2026년 취업박람회’에도 협력을 이어간다. 참여기관이 기업과 구직자를 함

게 발굴하고 현장 면접을 지원하는 한편,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은 구직자에 대해서는 적합한 일자리를 다시 연계하는 등 실질적인 취업 성과를 높이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역 대학의 라이즈(RISE) 사업과 기업 수요를 연계한 직무·실무교육을 발굴하고, 대규모 투자나 신·증설에 따른 인력 수요에는 정부 공모사업을 활용한 선제적인 인력양성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유은미 익산시 청년일자리과장은 “각 기관의 강점을 모아 청년에게는 취업 기회를 넓히고 기업에는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오싹한 가을밤… ‘호러 홀로그램’ 개막

익산교도소세트장서
10~13일까지

가을밤을 서늘한 긴장감과 첨단 영상 기술로 물들일 ‘제5회 익산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이 화려한 막을 올린다.

익산시는 10일 오후 대한민국 유일의 영화 촬영용 교도소인 익산 교도소세트장에서 개막식을 열고, 13일까지 1차 행사를 치른 뒤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차 축제를 이어간다.

올해 축제는 ‘로케이션 X: 금지된 생방송’을 주제로 펼쳐진다. 실시간 방송 도중 흔적도 없이 사라진 방송 제작진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 속에서, 관람객이 교도소 내부를 직접 걸어 다니며 단서를 풀어나가는 ‘방 탈출’ 형태의 몰입형 공포 체험을 선사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익산시가 선도하는 첨단 홀로그램 기술을 대중문화 콘텐츠와 유기적으로 엮어내 눈길을 끈다. 행사장 곳곳에 가상 입체 영상을 띄우는 미디어 기술을 총칭해 배치했으며, 별도 마련된 ‘홀



<사진=익산시>

로그램 기술 전시관’에서는 지역 유망 기업들의 혁신 제품과 상용화 기술을 공포 스토리텔링과 결합해 흥미진진하게 소개한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익산의 독보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인 첨단 홀로그램 기술에 독창적인 호러 스토리를 얹어 오직 익산에서만 즐길 수 있는 이색 야간 축제를 완성했다”며 “무엇보다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철저한 현장 관리로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어청도 해상풍력 군작전성 협의 점검

군산시장 주재로 꼼꼼히

군산시는 10일 시장 주재로 어청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군작전성 협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쟁점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어청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어청도 인근 해역에 1.02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 12월까지 군작전성 협의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올해 3월 집적화단지로 지정됐다.

이에 군산시는 국방부 및 8개 군 예

하부대를 직접 방문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군 작전성 분야 자문기관과 함께 부대별 작전 영향요인을 검토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협의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군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올해 말까지 군작전성 협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남은 기간 군부대와 긴밀히 소통해 군작전성 협의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수자원공사와 상수도 합동점검

문제 시설 추석 전 보수

정읍시가 추석 연휴 단수와 누수를 막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정읍수도센터와 배수지 11곳, 가압장 66곳 등 주요 상수도 시설을 합동 점검한다.

점검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다.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와 센터 관계자들이 참여해 시설 고장과 누수물 공급 중단을 예방하고 위생 관리와 비상 대응 준비 상태를 살필 예정이다.

배수지는 수도물을 저장해 각 지역에 보내는 시설이며, 가압장은 수압을 높여 물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돕는 시설이다. 점검반은 이들 시설의 구조물과 부속 시설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펌프, 전기 제어 장치, 발전기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핀다.

수질 관리 시설과 수처리 약품 투입설비의 상태도 확인한다. 물을 보내고 나누는 주요 관로의 누수와 공급 이상 여부, 비상시 수도물을 공급하는 체계, 긴급 복구 연락망과 복구용 자재 확보 상태도 점검한다.

점검 기간에는 정읍·태인·영원·소성배수지 청소도 함께 진행한다. 15일 정읍·태인배수지를 시작으로 18일에는 영원·소성배수지를 청소해 내부 위생 상태와 수도물 공급 과정의 수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는 비상근무와 긴급 복구 체계를 운영한다. 누수나 단수 등 수도물 공급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현장을 확인하고 복구에 나설 예정이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의회 의장단-군산항발전協, 간담회 개최

발전 방향 및 주요 현안 논의

군산시의회 의장단은 지난 9일 군산항발전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군산항 발전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군산시의회 의장단과 고병수 군산항발전협의회장 등 협의회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군산항발전협의회는 항만이 국가사업으로 추진·관리되고 있으나, 군산항이 군산의 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을 뒷받침해 온 핵심 기반 시설인 만큼 군산시의회와 군산시가 보다 각별한 관심과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이 상호연계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대응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며, 새만금신항 명칭에 ‘군산신항’이라는 지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군산시의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군산시의회 의장단은 항만 명칭이 해당 지역의 지명과 역사성, 정체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새만금신항 명칭에 군산의 이름과 정체성이 담길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병수 군산항발전협의회장은 “군산항은 군산의 중요한 지역 자산인 만큼 지역에서도 주인의식을 갖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이에 군산시의회 서동수 의장은 “오늘 제시된 현안과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군산항 발전을 위해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귀성객 맞이 ‘분주’ 곳곳 점검·정비 2(題)

완주군, 전통시장 민관 합동 안전 점검

완주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군민과 귀성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전통시장 시설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 안전 점검을 펼쳤다.

지난 9일 진행한 점검에는 완주군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민간 건축사사무소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실효성을 높였다.

점검반은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작동 여부, 화재경보설비 등 소방 분야를 비롯해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및 접지 상태, 가스누출 경보장치, 건축 시설물 균열과 구조적 안

전 상태 등 위험 요인을 면밀히 살폈다.

군은 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경미한 지적 사항은 명절 전까지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단기간에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관리 카드를 작성해 위험 요소를 완전히 없애 때까지 지속해서 추적 관리한다.

아울러 군은 최근 잇따른 다중이용시설 화재 사고에 대비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귀성객 이용이 집중되는 버스터미널 등 주요 교통 시설물까지 점검 대상을 넓혀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추석맞이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

남원시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시가지 일원 가로환경 정비에 나섰다.

남원시 산림복지과는 가을철을 맞아 주요 도로변과 시가지 일원의 녹지환경 정비에 나서고 있다.

명절을 앞두고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풀을 제거하고, 가로수의 옷자란 가지와 고사지를 전지해 깨끗하고 정돈된 도로경관을 조성한다.

특히 여름철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불량 가지 등을 정

비해 도로변 경관을 개선하고,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지를 제거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가로환경 정비는 단순한 환경미화에 그치지 않고 도시 녹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작업으로, 추석 명절을 맞아 납입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 이미지를 선보인다.

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취업박람회 개최…구인구직 만남의 장

관내 20개사 현장 면접·상담
구직자 200여명 행사장 찾아

순창군은 지난 9일 장애인체육관에서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고 지역 내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구인·구직데이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취업박람회에는 관내 20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면접과 채용상담을 진행했으며, 구직자 200여 명이 행사장을 찾아 기업별 채용정보를 확인하고 취업상담 및 면접에 참여했다.

특히 기업별 채용상담관에서는 구직자와 기업 간 현장면접이 진행돼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필요한 인재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취업지원관에서는 구직등록과 취업상담, 취업지원제도 안내 등을 실시했으며, 증명사진



촬영, 이미지 컨설팅, 취업타로, 행운키링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해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소상공인 창업상담과 지역 특화형 비자 상담 등 다양한 홍보·상담 부스를 운영해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과 지역 정착에 필요한 정보도 함께 제공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기업과 구직자가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역 내 고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과속·소음 민원 해소 광한서로 무인카메라 2곳 설치

남원시는 광한서로 일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차도용 블록포장 구간의 과속 차량 통행시 소음 문제를 해소하고 관광객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인고속카메라 2개소를 설치한다.

광한서로는 광한루원 등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의 이동이 많고, 주변에 음식점과 카페, 상가 등이 밀집해 있는 남원의 대표적인 관광·상업지역이다.

그러나 일부 차량의 차도용 블록포장 구간 과속으로 인해 진동과 충격음이 발생하면서 상가와 주민들의 소음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관광객의 보행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어 왔다.

차량이 해당 구간을 과속으로 통행할 경우 블록포장 특성상 진동과 충격음이 크게 발생해 인근 상가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보행 공간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제기됐다.

남원시 관계자는 “무인과속카메라 설치를 통해 과속 차량을 줄이고 그동안 상가와 주민들이 겪어온 소음 불편을 완화하는 동시에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시설공단, 익산도시공단과 체육시설 교차점검

완주군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팀이 지난 9일 익산시도시관리공단과 함께 체육시설 운영 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친환경·사회적 책무·투명 경영(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교차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양 기관이 상호 교류를 통해 각 공단의 시설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에서 쌓은 우수 사례와 실무 비결을 나눈 체육시설의 안전성과 관리 효율을 높이고자 마련했다.

이날 익산시도시관리공단 관계자들은 완주군 주요 체육시설을 방문해 시설물 안전과 유지관리 현황, 기계·전기·소방 설비, 수영장 안전관리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또한 비상상황 대응 체계와 이용객 안전 대책, 에너지 절감 등 친환경 시설 운영, 고객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군 시설관리공단은 이번에 도출된 개선 의견과 우수 사례를 향후 시설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희수 이사장은 “양 기관이 서로의 시설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ESG 경영을 현장에 안착시켜 군민이 언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 출향기업인 형우생 대표 ‘고향사랑’ 500만원 기부

㈜효진산업 형우생 대표가 10일 남원시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하며 고향 남원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형우생 대표는 현재 익산에서 자동차부품 및 농기계를 제작하는 ㈜효진산업을 운영하고 있다. 타지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고향 남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잊지 않고 이번 기부를 통해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특히 형우생 대표는 남원시 사매면 대을마을 출신으로, 재전남원연합향우회 회원으로도 활동하며 고향과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기부는 고향 남원의 발전을 응원하고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것으로, 타지에서도 고향을 생각하는 향우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줬다.

형우생 대표는 “고향 남원이 더욱 발전하고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고향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집중안전점검 3년 연속 ‘우수’ 패거

행안부 2026년 추진 평가서 선정 전문장비 활용 위험요인 선제 차단

순창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패거를 달성했다.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17일까지 56일간 관내 재난 및 사고 위험 우려 시설 87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군은 철저한 민관합동 점검과 첨단 장비 활용,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 밀착형 안전 행정을 적극 추진했다.

점검에는 소방·전기·가스·건축·산업안전 등 5개 분야 민간 전문가 15명과 담당 공무원 48명이 참여했다. 민관합

동점검 결과 보수·보강 73건, 현지시정 24건 등 모두 97건의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 조치에 나섰다.

군은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절연저항 측정기, 열원기감지기 시험기 등 13종 134회의 전문장비를 점검 대상의 88.5%(77개소)에 대대적으로 투입했다. 이를 통해 발굴된 97건의 지적사항 중 무려 94건이 전문장비 측정에 의해 포착되어 민관합동 점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극대화했다.

실제로 대상(주) 순창공장에서는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 전기설비의 비정상적인 발열을 사전에 발견해 대규모 정전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예방했다. 또한 동계시장의 비상경보장치와 아이랜드의 화재감지기 작동

상태를 점검해 이상을 발견하고 신속히 개선하는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주민 참여도 확대했다. 군은 주민이 생활 주변의 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해 작은목욕탕 10개소와 경로당 등 모두 18개소를 집중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전체 점검시설의 20.7%에 해당하며, 해당 시설에서 발견된 30건의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개선 조치를 추진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함께한 결과”라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청년친화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

청년 정책·입법·소통 높은 평가 청년정책위·이장단 활동 지원

완주군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조직위원회 위촉식 및 시상식에서 ‘제9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정책대상을 받으며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청년친화헌정대상은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가 정책·입법·소통 분야의 청년 친화도를 평가해 청년 친화적 행정을 앞장서 실천한 지자체를 선정해 주는 상이다. 청년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종합 평가하는 만큼 대외적 공신력이 높다.

군은 △청년종합지원센터 운영 △청년 특화 프로그램 운영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청년정책이장단 활동 지



<사진=완주군>

원 △청년참여예산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해 왔다.

특히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추진체계를 꾸준히 강화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3년 연속 수상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청년이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그 도약이 완주 전체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다져 전북 4대 도시의 위상을 확고히 세우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 가야고분군, 기후변화 대응 보존 해법 찾는다

세계유산축전 ‘대미’ 학술심포지엄 유산관리 국제 사례 공유·방안 모색

남원시는 10일 오전 9시 30분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기후변화와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의 보존관리’를 주제로 한 ‘2026 세계유산축전-가야고분군 국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1,500년 전 동아시아 공존과 교류의 상징인 가야고분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논의하는 국제적 소통의 장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전개된 ‘2026 세계유산축전-가야고분군’의 대미를 장식하는 핵심 학술 프로그램이다.

최근 전 지구적 위기로 부상한 급격

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속에서, 고분군과 같은 노출형 유산 및 매장유산의 선진적인 글로벌 보존 관리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 행사 본 세션에서는 기후 환경 및 문화유산 분야의 국내외 최고 권위자들이 대거 연사로 나서 심도 있는 발표를 이어갔다. 오전 세션은 김해동계명대 교수의 ‘기후변화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초강연으로 문을 열고 김영수 서울시립대 연구교수가 ‘HIA(유산영향평가)의 역할과 과제’를, 김기홍 고려국정학예연구사가 ‘기후변화에 따른 가야고분군 보존관리방안 제언’을 발표하며 국내 가야유산 보호의 실무적 대안을 제시했다.

오후 세션에는 해외 석학들의 국제 사례 공유가 이어져 주목을 받았다. 태국의 바수 포사난다나 박사(Dr. Vasu Poshyanandana)가 ‘기후변화가 태국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으며, 중국의 류상위(Liu Xiangyu) 연구원이 ‘기후 변화에 따른 서하 황릉의 보존 및 관리 방안’을 소개해 노출형 고분유산의 관리 지혜를 나눴다.

마지막으로 김영재 한국전통문화대교수가 ‘세계유산의 기후변화 대응 연구 동향’을, 조한나 한국환경영원원 실장이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세계유산에 대한 노력’을 발표하며 정책적 제언을 마무리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통합돌봄 강화

1인당 생애 최대 200만원 지원

순창군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의 하나로 주거환경개선에 나서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돕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통합돌봄 대상자 가운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낙상 위험이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정 내 생활환경을 살펴 안전바 설치, 문턱 제거 등 필요한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의 신체 상태와 주거 특성을 고려해 1인당 생애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최근 지원을 받은 한 어르신은 평소 거동이 불편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거나 집 안을 이동할 때 넘어질 위험이 컸다. 특히 실내 문턱을 오르내리거나 화장실을 이용할 때 불편이 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순창군은 어르신의 신체 상태와 평소 생활 동선을 확인한 뒤 이동이 잦은 공간에 안전바를 설치하고 실내 문턱을 제거했다.

군은 이 같은 주거환경개선을 비롯해 가사지원, 영양도시락 지원, 병원 동행 등 다양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 돌봄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군은 올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7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9월 현재까지 모두 238명이 통합돌봄을 신청했으며, 총 585건의 서비스가 연계돼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최영일 군수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한우협동조합, 인재육성 장학금 2천만원 기탁

누적 기탁액 1억3천만원 달해

완주한우협동조합(이사장 박일진)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재)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이사장 유희태)에 장학금 2,000만 원을 기탁했다.

10일 완주한우협동조합은 군수실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미래 세대의 꿈을 응원하는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유희태 군수(재단 이사장)와 군 관계자, 박일진 완주한우협동조합 이사장 및 임원진 등 10여 명이 참석해 지역 학생 지원을 위한 뜻을 함께 모았다.

조합은 지난 2017년부터 완주군인 재육성재단에 해마다 장학금을 기탁하며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번 기탁을 포함해 지금까지 누적 장학금만 1억 3,500만 원에 달하며 지역사회를 향한 지속적인 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박일진 이사장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며 학업에 전념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협동조합이 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익산 마동지사협
'사랑의 밥차' 운영

익산시 마동에 지역 이웃들의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지는 '사랑의 밥차'가 찾아왔다. 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남희·최희정)는 10일 마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지역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밥차' 무료 급식 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건강드림, 익산시자원봉사센터가 힘을 모아 마련했으며, 독거노인 등 지역 주민 20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행사에는 '마곳간 봉사단' 회원 40여 명이 봉사자로 참여해 힘을 보탰다. 회원들은 식사 준비를 비롯해 ㈜건강드림이 후원한 국과 밀반찬 배식, 현장 안내와 정리 등을 맡아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했다. 익산시보건소도 현장을 찾아 감염병 예방 홍보 활동을 펼쳤다. 주민들에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예방수칙을 안내하며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렸다.

/익산=최준호 기자



남원시여성단체협의회
장학금 300만원 기탁

남원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은진, 이하 협의회)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올해도 이어가기 위해 춘향장학재단(이사장 양충모)에 장학기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의회는 매년 회원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정성을 모아 자체적으로 딸기잼을 직접 만들고 판매해 왔다. 이렇게 따낸 수익금을 매년 춘향장학재단에 기탁하며 지역 교육 발전과 후학 양성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특히 이번 기탁을 통해 협의회는 누적 기탁금은 총 1,100만 원을 달성하여 1천만 원 이상 '남원사랑의 연대'에 이름을 새기게 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은진 협의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활동에 앞장서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부안 '파란곳간' 김서연 대표, 행복농촌 만들기 '금상'

농촌지역 창업가 분야 수상
지속가능 농촌생태계 조성

부안군은 지난 9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제13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계획면 '파란곳간' 김서연 대표가 우수 주민(농촌지역 창업가) 분야 최고 영예인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는 주민 주도 지역개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마을만들기, 농촌만들기, 농촌환경개선, 우수주민(활동가, 창업가)의 4개 분야에서 전문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수상 대상자를 선정했다.

'파란곳간' 김서연 대표는 부안

쌀의 생산·가공·체험이 연결된 융복합 모델의 발전과 농촌의 전통적 가치 및 공동체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지역재생과 지속가능한 농촌생태계를 조성하였다는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주민(농촌지역 창업가) 분야에서 최고 영예를 차지했다. 이번 수상을 위해 부안군 농촌활력과와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는 참가자 발굴, 신청서 작성 및 발표심사 컨설팅, 현장 지도 지역개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마을만들기, 농촌만들기, 농촌환경개선, 우수주민(활동가, 창업가)의 4개 분야에서 전문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수상 대상자를 선정했다.



부안군은 지난 9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제13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계획면 '파란곳간' 김서연 대표가 우수 주민(농촌지역 창업가) 분야 최고 영예인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진=부안군> 한편, 올해 수상으로 2년 연속 고 농촌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 우수주민(농촌지역 창업가)분야 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 금상을 수상한 부안군은 지역을 다. /부안=신상수 기자



한국생활개선 김제시연합회
취약계층에 후원품 전달

김제시는 한국생활개선 김제시연합회(회장 김현아)가 10일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330만원 상당의 후원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정성주 김제시장과 김현아 한국생활개선 김제시연합회장을 비롯한 회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따뜻한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 한국생활개선 김제시연합회는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기탁 역시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된 후원품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달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예정이다.

/김제=윤봉기 기자

(유)삼오, 정읍 인재 위해 20번째 장학금 기탁

2월에 이어 7개월 만에 다시
총 2200만원 장학금 누적

(유)삼오 최준삼 대표(사진)는 지난 9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정읍 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으로 2012년부터 전달한 장학금은 모두 20차례, 2200만원으로 늘었다.

삼오에는 태인농공단지에 자리한 도로 안전 울타리(가드레일)와 안전 표지판 등 도로 안전시설물을 만들어 설치하는 업체다. 올해 2월에도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한 데 이어 7개월 만에 다시 200만원을 보냈다. 최준삼 대표는 "지역 인재를 키우

/정읍=김정인 기자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 후원금 700만원 전달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가 최근 열린 '제27회 완주군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좋은이웃사랑 후원금 7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좋은이웃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후원금 700만 원은 지난 3월부터 백정열(썬)새는 대표를 비

롯해 안연실 완주군평생교육이카 데미 대표, 삼덕교회 임광영 목사·김송희 사모, 박은천 한국장애인부모회 완주군지부장, 이경주 정심원장, 이진호 사회적협동조합소 대표, 은혜의동산 입주민 일동 등 8명의 후원자가 십시일반 뜻을 모아 마련했다. 후원금은 좋은이웃들 사업을 통해 발굴된 완주군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진안군 진봉회, 발달장애청소년 냉난방기 지원

진안 지역 봉사단체 진봉회(회장 안정기)가 지난 7일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쾌적한 방과후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냉난방기를 지원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발달장애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공간 '보듬'은 기존 냉난방기 고장으로 올여름 무더위 속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러한 사정을 전해들은 진봉회는 청소년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방과후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냉난방기 설치·지원에 나섰다. 이번 지원은 단순한 물품 후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관심과 나눔으로 발달장애청소년의 안정적인 돌봄과 건강한 일상을 돕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평가된다. 한편 진봉회는 지역 곳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꾸준히 나눔과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초록우산 전북본부
고창 취약아동에 따뜻한 나눔

고창군은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미애)가 지역 내 어려운 아동을 위해 2100만원 상당의 현물을 지원하고, 1000만원 상당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드림스타트 보호대상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는 장난감, 쿠키, 문구세트 등 2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이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취약계층 3가정을 대상으로 도배·장판 교체 등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지역 아동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에 감사드립니다"며 "소중한 후원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고
전북연합신문사 대표이사·효사랑실천전북협의회장 故 안우연 님 별세(전북연합신문사 편집국장 성영열 씨 부인)

빈소 : 전주금성장례식장 특 201호 (2층)
발인 :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장지 : 완주군 공설공원묘지
연락처 : 010-6651-5339
마음 전하실 곳
40205702313496 우체국 성영열



함께 해요 !

플라스틱 줄이기

일회용 플라스틱을 생산하는데 5초
사용하는데 5분, 분해하는데 500년 !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플라스틱을 줄이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아보고 함께 실천 해요!



〈一事一言〉



청렴, 우리의 일상이 되다

이양희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지사장

한 해를 돌아보면, 청렴이라는 가치를 조직 안에 어떻게 뿌리내릴 것인가는 늘 무거운 고민이었습니다. 규정을 강조하고 교육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구성원의 마음까지 움직이기 어렵다는 것을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두꺼운 지침서를 만들어 배포해도, 그것을 읽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없다면 청렴은 서류 속의 문구로만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발상을 바꾸어보았습니다. 출근길 직원들의 손에 작은 쿠키 한 조각을 쥐어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한 날의 간식이 아니라, 그 쿠키 위에는 청렴에 관한 짧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청렴 일일 마중'이라 이름 붙인 이 작은 시도는, 청렴이라는 가치를 딱딱한 지침이 아니라 하루를 여는 자연스러운 마음가짐으로 전달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낯설어하던 직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그날의 문구를 나누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이며, 청렴이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레 되새기는 가치로 자리잡아가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사소한 보이는 이 변화가 조직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는 것을 보면서, 청렴은 결국 큰 제도보다 작은 실천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진장지사는 올해 청렴을 조직의 일상 속에 뿌리내리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AI를 활용한 청렴 웹툰을 제작해 무겁게만 느껴지던 반부패 메

시지를 친근하게 전달했고, 청렴 문화를 앞장서 이끌어갈 청렴지기를 선정해 구성원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했습니다.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청렴 인생네컷 프레임을 만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청렴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으로 인식의 전환을 꾀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부서별 청렴 실천 다짐 릴레이, 청렴 골든벨 퀴즈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직원들이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캠페인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도록 유도했습니다. 특히 청렴지기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까지 맡으면서, 캠페인 하나하나가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업무 태도의 변화로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의 바탕에는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청렴 문화는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성원 각자가 일상 속 작은 판단의 순간마다 스스로 기준을 세울 때, 그리고 그 기준을 서로 격려하고 나눌 때 비로소 조직의 문화로 자리잡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규정과 매뉴얼이 있어도,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의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청렴은 형식에 그치고 맙니다.

반대로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쌓이면, 그것이 곧 조직 전체의 신뢰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올 한 해의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업무 현장에서 사소한 보이는 청탁이나 편의 제공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는 작은 용기들이

모여, 조직 전체의 신뢰라는 큰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농업용수 관리와 농촌 기반 정비 등 농민과 지역사회의 삶에 직접 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는 단순한 직업윤리가 아니라, 현장에서 우리를 믿고 의지하는 분들에 대한 책임입니다.

특히 농업용수 배분이나 시설 공사 발주 과정에서 사소한 판단 하나가 지역 농민들의 한 해 농사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렴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업무 원칙입니다.

가뭇이 심했던 지난여름, 제한된 용수를 어느 지역에 우선 배분할 것인가를 두고 여러 민원이 있었지만,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청렴 문화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무진장지사는 앞으로도 청렴을 구호가 아닌 우리의 일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작은 쿠키 한 조각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언젠가 지역사회 전체가 신뢰하는 큰 문화로 자리나기를 기대합니다. 청렴은 한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반복 속에서 다져지는 습관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ㅣ 독자투고 ㅣ

준법 집회·시위는 표현의 힘을 키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민주주의의 기반이다.

다만, 표현의 자유가 사회적 공감을 얻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 속에서 진행될 때 참가자의 안전은 물론

시민의 일상도 보호될 수 있으며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게 한다. 반대로 불법적 행위나 과도한 충돌은 본래의 목적을 흐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

특히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무분별한 확성기·앰프 사용은 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침해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는 확성기등 사용시 소음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경찰은 집회 신고 접수 단계부터 이를 안내하고 관련

규정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시민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집회·시위의 진정한 힘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시민의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있다. 법과 질서 속에서 이뤄지는 준법 집회·시위는 표현의 자유를 더욱 빛나게 하고, 우리 사회의 표현의 힘을 한층 더 크게 키워 나갈 것이다.

김제경찰서 경비안보과 경사 서은진

사 설

대한방직 9·28, 조지훈 시장 결단하라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조지훈 전주시장을 향해 오는 9월 28일까지 사업 추진 여부를 결단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정치공세 여부를 떠나 장기간 표류해 온 대한방직 개발을 언제까지 불확실한 상태로 방치할 것이냐는 지적은 전주시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핵심은 사업자인 자광의 실질적인 사업이행 능력이다. 전주시와 자광이 체결한 사업시행협약에는 사업계획 승인 후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그 시한이 9월 28일이다. 그러나 시공사와 막대한 사업비 조달계획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지방세와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문제까지 불거졌다. 조 시장도 시의회에서 자광의 사업수행 및 자금조달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판단을 미룰 이유가 없다. 전주시는 시공사 선정, 자금조달 계획, 체납 해소, 구체적인 착공 일정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9월 28일까지 실질적인 사업이행 능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협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주택법상 착공기한 5년을 내세워 사실상 사업자에게 추가 시간을 주는 방식은 경계해야 한다. 전주시가 스스로 체결한 협약의 1년 착공 원칙을 무력화하면서까지 기한을 연장한다면 특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명확한 근거와 성과 없이 특정 사업자에게 시간만 더 주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허무는 일이다.

대한방직 부지는 특정 사업자의 사업권을 지켜주기 위한 공간이 아니다. 전주의 미래 도시구조와 지역경제를 좌우할 핵심 자산이다. 판단의 기준은 자광의 사정이 아니라 전주의 미래여야 한다.

9월 28일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다. 전주시 행정의 원칙과 신뢰를 가늠하는 시험대다. 사업이행 능력이 확인되면 추진하면 된다. 그렇지 못하다면 특혜성 연장 없이 원칙대로 정리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 조지훈 시장이 더 이상 결단을 미뤄서는 안 된다.

▲오늘의시

가을별 / 박노해

가을별이 너무 좋아 고추를 따서 말린다 흙마당에 널어놓은 빨간 고추는 물기를 여의며 투명한 속을 비추고 높푸른 하늘에 내걸린 흰 빨래가 바람에 몸 흔들며 눈부시다	가을별이 너무 좋아 가만히 나를 말린다 내 슬픔을 상처 난 욕망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살아온 날들
---	--

시인 약력 : 1957년 전남 함평 출생. 선린상고를 졸업했다. 1983년 '시와 경제'에 '시대의 꿈'이라는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1984년 시집 '노동의 새벽'을 내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고 1백만부 이상 팔려 밀리언 셀러가 됐다.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1998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복권되었으나 국가보상금을 거부했다. 옥중 에세이 '사람만이 희망이다' 등 다수의 작품을 출간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9월 11일 금요일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월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8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발북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JBT

정직한 언론, 전북 타임스

전북의 힘, 정직한 언론

거짓없는 보도, 정확한 뉴스

언제나 도민과 함께하는 신문

<https://www.jeonbuktimes.co.kr>

문의 -063)282-9601

제31회 필봉마을굿축제

전통예술의 흥과 멋 나누고
무형유산의 내일 함께 그린다



제31회 필봉무형유산(마을굿)축제가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필봉문화촌에서 열린다.

전국 각 지역의 무형유산 공연과 경연, 세미나, 전시, 체험을 통해 전통예술의 다채로운 모습을 만나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온 마을 공동체의 의미를 나눈다.

필봉마을의 농악은 농사의 풍요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이웃과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삶 속에서 이어져 왔다.

이번 축제는 이러한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전승자와 지역 주민, 관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다. 오랜 시간 전해 온 전통의 가치를 오늘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만남의 기회를 마련한다.

축제 기간에는 국가무형유산 놀이와 농악을 비롯해 해외 전통예술단체 공연, 창작 연회극 등이 펼쳐진다.

각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이를 새롭게 풀이한 무대가 어우러져 우리 연희의 깊이와 폭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열리는 경연대회에서는 개인 참가자와 단체가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전통연회를 이어갈 새로운 주역들의 열정과 가능성을 만날 수 있다.

무대에서 만난 전통예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세미나에서는 전통연회의 전승과 동시대성을 주제로 오늘날의 역할과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고, 전시에서는 필봉농악을 이어 온 사람들과 마을의 시간을 기록으로 조명한다.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무형유산 체험도 더해져, 다양한 세대가 전통문화를 보고 배우며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축제의 마지막은 임실필봉농악보존회 단원과 축제 참여진, 관객이 함께하는 대동함곡으로 장식한다.

공연을 펼친 이들과 지켜본 이들이 한데 어우러져 신명을 나누며, 서로의 삶을 보듬고 함께해 온 필봉농악의 공동체 정신을 되새긴다.

축제 관련 문의는 임실필봉농악보존회 (063-643-1902)로 하면 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개최



제31회
필봉 무형유산 축제
마을굿

2026. 9. 17. 목
~ 9. 20. 일

필봉문화촌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강운로 272)

주최·주관 | 임실필봉농악보존회
후원 | 국가유산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국가유산진흥원
K water 섬진강댐지사 원광디지털대학교 농업진흥원 임실군지부